문제 1. 로또 6/45의 1등, 2등, 3등 당첨 확률은 얼마인가? 로또 1등 당첨자가 평균적인 확률에 비해 이상하게 많다고 할 수 있는지?

풀이:

우선 로또 숫자 조합을 계산해보면, 1부터 45까지 숫자 중 6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한다. 따라서 가능한 총 조합의 수는 아래와 같다.

$$\frac{45!}{6!(45-6)!}$$
 = 8,145,060

1) 1등 당첨 확률: 6개를 정확히 맞춰야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1개이다. 따라서 확률은

$$P(1^{\frac{\square}{\lozenge}}) = \frac{1}{8,145,060}$$

2) 2등 당첨 확률: 6개 중 5개를 맞추고, 남은 한 개가 보너스 숫자와 같아야 한다. 따라서 6개 중 5개를 선택할 경우의 수는 6개이고, 나머지 숫자는 반드시 보너스 숫자여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경우의 수는 6이다.

따라서 확률은 
$$P(2등) = \frac{6}{8,145,060}$$

3) 3등 당첨 확률: 6개 중에 5개의 숫자만 일치하면 된다. 따라서 앞 서 본 것과 같이 6개 중 5개를 선택할 경우의 수는 6이고, 여기에 나머지 숫자는 당첨 숫자 6개와 보너스 숫자 1개를 제외한 38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다. 따라서

6 × 38 = 228  
따라서 확률은  
$$P(3 \frac{5}{6}) = \frac{228}{8,145,060}$$

로또 1등 당첨자가 평균적인 확률에 비해 이상하게 많다고 할 수 있는지? 동행복권 로또히스토리 사이트를 접속해보자.

(https://dhlottery.co.kr/gameInfo.do?method=statHistory)

# 로또 6/45의 히스토리를 안내해 드립니다.

제 1회부터 제 1161회까지 누적 히스토리 입니다.



현재까지 총 판매금액	80,226,476,220,000 원
현재까지의 총 당첨금액	40,113,238,110,000 원
현재까지 누적 1등 당첨자수	9,413 명
현재까지 누적 2등 당첨자수	57,019 명
현재까지 누적 3등 당첨자수	2,152,917 명

1회부터 1161회까지의 로또 관련 데이터가 나와있다.

1등 당첨자의 수가 9,413명이라고 나와 있다.

우리가 앞서 1등 당첨자의 확률은 평균적으로 8,145,060장 판매 될 때마다 1장이 나온다고 보았다.

이 확률을 가지고 계산해보면, 1161회까지 9,413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을 때, 기대 판매금액은

기대판매금액 = 8,145,060장 × 1161회 × 1000원 = 76,669,449,780,000원

그런데 실제 판매금액은 **80,226,476,220,00**원이므로 평균 확률보다 더 적게 **1**등 당첨이 됬었음을 알 수 있다.

다만 1등 당첨자와 2, 3등 당첨자와의 확률 비는 9,413 : 57,019 : 2,152,917 = 1 : 6.057 : 228.717

이 비율은 위에서 구한 경우의 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.

# 문제 2. Bayes Theorem

# Bayes Theorem example

Suppose a drug test is 99% sensitive and 99% specific. That is, the test will produce 99% true positive results for drug users and 99% true negative results for non-drug users. Suppose that 0.5% of people are users of the drug. If a randomly selected individual tests positive, what is the probability he or she is a user?

```
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.
```

```
P(true\ positive\ |\ drug\ user) = 0.99
P(false\ negative\ |\ drug\ user) = 0.01
```

약 투여자 중 99%는 정상 양성이 나오지만, 1%는 오검출되어 위음성이 나온다.

```
P(true\ negative\ |\ non\ -\ drug\ user)=0.99
P(flalse\ positive\ |\ non\ -\ drug\ user)=0.01
```

약 비사용자 중 99%는 정상 음성이 나오지만, 1%는 오검출되어 위양성이 나온다.

```
P(drug user) = 0.005

P(non - drug user) = 0.995
```

P(drug user | positive) = ?

```
= \frac{P(user \cap positive)}{P(positive)} = \frac{P(true \ positive | drug \ user) \cdot P(drug \ user)}{P(true \ positive | drug \ user) \cdot P(drug \ user) + P(false \ positive | non-drug \ user) \cdot P(non-drug \ user)}
= \frac{0.99 \cdot 0.005}{0.99 \cdot 0.005 + 0.01 \cdot 0.995}
= \frac{0.00495}{0.0149}
= 0.332214765100671 (<math>^{\circ}: 33%)
```

## 문제 3. Bayes Inference

A, B, C 중 한 사람이 근무 중 작업을 한다.

30일 기준으로 A의 작업 일수는 평균 18일, B의 작업 일수는 9일, C의 작업 일수는 3일이고,

A, B, C가 작업 시 실수할 확률은 각각 0.3%, 0.7%, 1%로 알려져 있다.

1) 전 날 작업한 결과물 중 하나를 샘플로 검사하였더니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전 날 A, B, C 중 누가 작업했을 확률이 가장 높은가?

$$P(A$$
가 실수  $|A$ 가 근무) = 0.003

$$P(B$$
가 실수  $|B$ 가 근무) = 0.007

$$P(C$$
가 실수 |  $C$ 가 근무) = 0.01

$$P(A$$
가 근무할 확률) = 18/30

$$P(B$$
가 근무할 확률) = 9/30

$$P(C$$
가 근무할 확률) = 3/30

$$P(A$$
가 근무 | 실수가 발견) =  $\frac{P(A \rightarrow P(A) \rightarrow P(A))}{P(A \rightarrow P(A))}$ 

#### $P(실수가 발견 | A가 근무) \cdot P(A가 근무)$

 $= \frac{1}{P( 2 + 7) + P( 2 + 7)$ 

$$= \frac{0.003 \times 18/30}{0.003 \times 18/30 + 0.007 \times 9/30 + 0.01 \times 3/30}$$

$$= \frac{0.0018}{0.0018 + 0.0021 + 0.001} = 0.367346$$

$$P(B$$
가 근무 | 실수가 발견) =  $\frac{P(B$ 가 근무  $\cap$  실수가 발견)}{P(실수가 발견)}

$$= \frac{0.007 \times 9/30}{0.003 \times 18/30 + 0.007 \times 9/30 + 0.01 \times 3/30}$$

$$= \frac{0.0021}{0.0018 + 0.0021 + 0.001} = 0.428571$$

$$P(C$$
가 근무 | 실수가 발견) =  $\frac{P(C \cap C \cap D)}{P(2 \cap C \cap D)}$ 

#### $P(실수가 발견 | C가 근무) \cdot P(C가 근무)$

$$= \frac{0.01 \times 3/30}{0.003 \times 18/30 + 0.007 \times 9/30 + 0.01 \times 3/30}$$

$$= \frac{0.001}{0.0018 + 0.0021 + 0.001} = 0.204081$$

따라서 B의 실수일 확률이 약 42.85%로 가장 높다.

2) 샘플을 하나 더 열어봤더니 또 실수가 있었다면 전 날 작업한 사람의 확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

A의 경우를 생각해보자.

P(A가 1차 실수 | 2차 실수) =

여기서 P(2차 실수 | A가 1차 실수)는 사실 상 <math>P(2차 실수 | A)와 같다고 볼 수 있다. 왜냐하면 이미 A가 1차 때 실수 했다는 건, 이 날 작업을 A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.

따라서 P(2차 실수 | A가 1차 실수) = 0.003 즉, A가 실수할 확률과 동일하다.그리고 P(A가 1차 실수) = P(A가 근무 | 실수가 발견) = 0.367346

이와 같이 정리하면,

P(2차 실수 | B가 1차 실수) = 0.007P(2차 실수 | B가 1차 실수) = 0.01

P(B가 1차 실수) = 0.428571 P(C가 1치 실수) = 0.204081

이를 대입하여 정리하면,

*P*(*A*가 1차 실수 | 2차 실수) = = 0.1794 $0.003 \times 0.367346 + 0.007 \times 0.428571 + 0.01 \times 0.204081$ 0.006141  $\frac{0.002999}{0.002999} = 0.4883$ 0.007×0.428571 *P*(*B*가 1차 실수 | 2차 실수) =  $0.003 \times 0.367346 + 0.007 \times 0.428571 + 0.01 \times 0.204081$ 0.01×0.204081 P(B가 1차 실수 | 2차 실수) = = 0.3321 $\frac{}{0.003\times0.367346+0.007\times0.428571+0.01\times0.204081} =$ 

연속 2개의 샘플을 확인했을 때, 2개 모두 실수인 경우에도 전 날 작업자가 B일 확률이 약 49%로 가장 높다.